

과학기술인력 확보 시급하다

우리 과학기술계도 이제 국내외 과학기술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2000년대에 꼭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의 발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하겠다. 우리 과학기술계는 정부의 지원이나 과기처장관의 부총리급 격상 등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2000년대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모든 분야별로 다음 정부가 해야 할 희망사항이랄까 또는 압력이랄까 하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과학기술계도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희망사항이 있다. 예를 들자면 과학기술처 장관의 부총리급 격상, 대통령의 과학기술특보 등 자리에 관한 이야기와 GNP의 몇% 이상 또는 정부 예산의 얼마 이상을 과학기술분야에 투자를 한다는 돈이야기와 산학 협동의 강화 등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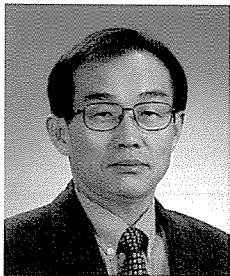
우리 과학기술계도自省해야

많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정치가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통령제나, 내각제나 하는 자리이야기와 모든 분야에 골고루 예산을 투자하여 다 잘 살게 하겠다 하는 막연한 원론적 이야기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거 당시의 공약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과학기술계도 무엇을 어떻게 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보다는 항상 정부 지원이 취약하다 또는 과학기술처 장관의 위상이 취약하여 과학기술 행정이 잘 안되고 있다 또는 대통령의 과학기술특보가 없어 과학기술 투자가 취약하다는 등 주로 돈과 자리이야기에 급급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투자는 우리나라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의 관심도 매우 높은 편이나 우리 과학기술계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는 겸허히 자성을 하여야 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연구개발 효과보다는 현장의 생산기술 및 품질관리에 의한 기여도가 더 크다고 알려지고 있는 이때에 과학기술계는 연구개발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될 것 같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에서 제한된 정부 예산을 고려할 때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예산을 배분하는 소위 학문의 균등발전 개념으로 추



韓民九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교수)

진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하여 몇 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즉 예산의 무조건 확대가 아닌 과학기술 투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으나 하는 소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청사진이 과학기술계에서 스스로 논의된 적은 거의 없었다.

이제 과학기술계에서도 국내외 과학기술 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2000년대에 꼭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의 발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즉 한정된 정부 예산에서 무엇이 효율적인 투자인지를 우리 과학기술계가 스스로 제시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개혁은 가급적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스스로의 뼈를 깎는 노력없이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겠다.

우수 과학기술人材 양성 중요

우리 과학기술계는 정부의 지원이나 과학기술계의 위상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과학기술 인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왔다. 경제가 발전하여 생활수준이 올라갈수록 과학기술분야의 선호도가 떨어진다 것은 선진국에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과학기술분야가 젊은 대학생이나 또는 고등학생들에게 소위 인기분야가 아니라 골치 아픈 분야로 인식되면서 우수한 학생들의 과학기술분야의 탈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많은 과학기술분야의 대학원생들이 본국 출신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외

국인들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공학이나 자연과학 분야의 선호도가 전 같지 않으며 예전에 비하여 의과대학과 법과대학의 소위 커트라인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수한 인력들이 난해한 과학기술분야를 기피하고 있으며 소위 3D 업종으로 과학기술자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은 저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과학기술계의 가장 중요한 하부 구조인 인력 확보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는 앞으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력 이야기보다는 정부의 지원 또는 자리 이야기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미 고급 인력의 공급 과잉 현상이 분야별로 심화되고 있어 힘들게 박사 학위를 취득해도 취업이 안되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학에서 공개 채용을 할 때 경쟁률이 몇 십대 일을 넘고 있는 분야가 많다. 우리 과학기술계에서 향후 분야별 인력 수요 및 공급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러한 고급 인력 공급 과잉 문제는 최근 이공계대학의 급격한 증원과 맞물려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이미 몇 개 과학기술분야의 인력 공급이 과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 바 우리 과학기술계가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과학기술 인력의 공급 과잉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일부 분야는 인력이 과잉 공급되고 있지만, 산업체에서는 분야별로 필요한 고급 인력이 제대로 공

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종 재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체에서 필요한 고급 인력의 공급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우리나라 대학원의 정상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예는 소위 병역특례제도이다. 누구나 다 병역의무를 필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도리이나 정부는 젊은 과학기술자들의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병역의무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병역특례제도를 실시하여 우수 인력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바 우리 과학기술계는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노출될 때 우리 과학기술계는 무엇을 하였던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과학고교 自退파동 안타까워

최근 과학고등학교 등 특수 목적 고의 대학입학시험에서의 심각한 문제에 우리 과학기술계에서는 무엇을 하였는가,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여 미래 과학기술계의 영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자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계는 무엇을 하였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 우리 과학기술계도 과학기술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이나 호소하고 과학기술처 장관의 부총리급 격상 등 단기간의 처방보다는 장기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연구 개발 투자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여야 하겠다. ①